

한국 거주 미얀마인들 “군 쿠데타 피해 심각…도와달라”

“미얀마 군부, 불법 억류자 석방하라”

“주한미얀마 대사관, 군부와 손잡아”

정부, 군부와 국방·치안 교류협력 중단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민간인 무력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한국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미얀마인 단체인 ‘친(Chin)청년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미얀마인인 마이 친친씨는 성명서 낭독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1962년부터 2010년까지 총 48년이나 군사독재정권에서 살아야했다”며 “우리는 2011년 민주주의를 되찾았지만 2021년 다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부쿠데타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들을 복원하고 불법 억류자들을 석방하길 요구한다”며 “또 미얀마 군대는 국가 권력을 포기하고 군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이 친친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내 군부폭력을 중단하고 군사독재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인 레이첼 김씨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인들을 도와달라”며 “도움이 없다면 미얀마 국

민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얀마인 남편을 둔 한국여성 마모(44)씨는 “저는 미얀마 사람과 10년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주한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국민들 것인데 저 대사관은 지금 군부와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군부와 손잡은 대사관 사람들을 한국에서 추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한 미얀마인들과 한국 시민단체가 만든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도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단체는 “저희는 미얀마에서 유학을 오거나 일을 하러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라며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을 발사해 19살 어린 소녀를 포함해 2명이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같은 미얀마 동포들은 총파업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기부금을 모아 파업투쟁을 지원키로 결의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은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은 합계군 군부독재시대를 국민의 손으로 끝내고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낸 걸로 안다”며 “암울했던 군부독재와 5.18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 많은 한국인들이 피 흘리며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반독재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한 것처럼 미얀마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에 반발한 시위대에 살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시위



대가 사망하고 약 2000명이 구금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 군부에 대해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등 산업용 전락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 측 군 장교와 경찰대장 위탁교육 등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제외한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선욱기자



포근한 봄 날씨의 주말 막바지 즐기는 사람들.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고당길에서 사람들이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 시비 붙은 상대 살해한 30대 구속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 상대를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은 A(3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20대인 B씨를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으로 시비가 붙은 B씨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렀다. 이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정의당 순천위 여성당원 “2년전 집요한 당내 스토킹 당해”

지역위 간부가 보낸 전화·문자에 극심한 고통 느껴

안녕하세요. 전남도당 순천시 위원회 청년 정의당 당원 글 작성에 앞서 저의 소속을 미리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라함은, 정당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정의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자, 전남도당 창당 준비 위원회 준비위원이 3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시달려 왔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이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입니다. 저는 저의 직속 상사를 알고 있으며, 직장에 찾아오겠다 말을 한 적이 있으며, 근무 중에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침 저녁으로 카톡 및 전화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죽든, 모두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보다 10살 가량 많고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모조리 피하여 그 어떤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나, 연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휴대용 알람을 통하여 본인 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 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반복적인 알람이 뜨게끔 합니다. 답변하지 않았으나 일방적인 연락은 비공개 계정까지 모조리 찾아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노출시켰습니다.

정의당 순천위원회 20대 여성당원이 2년 전 당내에서 스토킹을 3개월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제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여성당원 SNS화면 캡처) 2021.03.13.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의 20대 초반 여성당원이 2년 전 10살 연상의 남성당원에게 3개월간 극심한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폭로했다. 13일 정의당원 A(23·여) 씨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10월 정의당에 가입했으며 이후 당원이자 전남도당 창당 준비위원인 B씨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나이 차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이유가 없었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카톡과 전화가 근무 중이나 아침과 저녁에 왔다고 돌이켰다. 또 연락을 피하고 답문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됐으며 3개월간 오전과 오후 등 전화와 메시지로 고통받았다고 썼다.

사생활과 명확히 구분돼 대외활동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울증과 고통으로 병약해졌고 불안과 두통으로 약을 추가 처방해 복용하는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도 하소연했다.

A 씨는 당시 고작 21살이었지만,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애로 포장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인권 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2년 전 사건을 모두가 보는 공간에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B 씨라며 옛되되 21살의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고 글을 썼다. B 씨 징계 및 처벌을 요구했다.

A 씨의 SNS글은 지난달 공개됐으나 이후 A 씨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SNS문자와 답글이 줄을 이었다. B 씨는 A 씨의 폭로에 대해 과하게 다가간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